

조경 설계에서 전원 이상의 전통과 그 이면

배 정 한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조경·지역계획연구부 특별연구원

The Pastoral Ideal and its Legacy to Landscape Design

Pae, Jeong-Hann, Ph.D.

Divis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 Regional Planning,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and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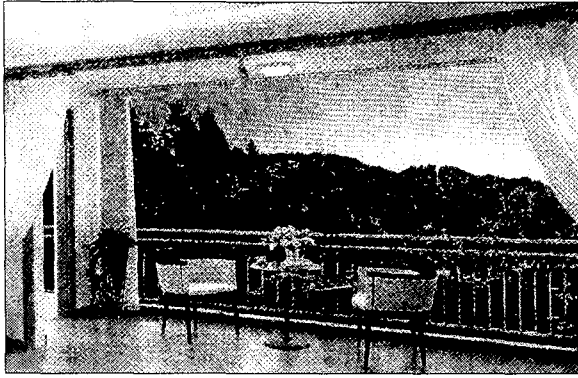
This paper examines *the pastoral ideal* and its legacy to landscape design. We have had the routine convention of experiencing natural beauty from *the picture-like nature*. We, who would liken a scenic view to a picture, often equate natural beauty with superficial representations of nature shown in pastoral literature and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s: the lush of towering trees, the field of endless green, the soft babbling flow of the river, and the crisp clear sky. It is not a portrayal of nature as it is, but in fact a conceptual expression of its ideal form. The ideological root of that natural beauty can be retraced to the pastoral ideal, so eagerly longed for by people of the western world. A pastoral landscape graciously marked with leisurely peace and subtle harmony is what we identify as beautiful nature. In fact, however, it is no more than an artificial refuge in contextual isolation from its surrounding, and a by-stander's nature seen purely through the eyes of the outsider. The tradition of pastoralism, reaching its peak in the 18th century with its English Landscape Garden style, was transplanted into the real world through the practice of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design in such a form is just a static means of decoration devoid of meaning and process. And we simply identify the green ornamentation with nature.

1. 머리말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치장해 주는 대표적인 선전 문구로 이른바 '전원'이 있다. 아름다운 전원, 전원의 행복한 삶, 그림처럼 평화로운 전원의 품격, 도심 속의 자연 — 이처럼 매력적인 광고 카피를 관통하고 있는 전원 개념은 조경 설계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그림 1 참조). 흥미로운 점은 전원엔 위치한 아파트이건 도심지의 재개발 아파트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전원풍의 외부 공간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에 있다. 친자연적 환경 창출이라는 패러다임을 방패로 삼고 있는 이러한 전원 예찬이 원생의 자연보다는 곱게 길들여진 자연을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원에 대한 열망은 최근의 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다양한 방식의 동거 관계를 유지해 온 역사적 현상이며 조경의 역사를 구성해 온 중요한 동인이기도 하다. 조경 설계는 녹색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미명하에 문명의 편리함과 자연의 낭만을 결합시킨 중성적인 전원 속에 자연을 가두기 위해 골몰해 왔다고 말해도 지나친 논리는 아닐 것



[그림 1] 전원예 대한 열망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잘 드러난다.

이다.

녹색의 넓은 초지, 그 위에 드문드문 그늘을 드리우고 선 큰 키의 교목, 그 사이를 부드럽게 굽이치며 흐르는 시내, 저 멀리 뭉개구름이 피어나는 파란 하늘—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감탄하곤 하는 자연의 모습이다. 이러한 풍경에 우리는 “한 폭의 그림 같다”는 감탄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속에 각인된 어떤 ‘그림 같은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¹⁾ 그림 같은 자연은 ‘전원’의 다른 이름이다. 바로 그러한 전원이 유래 없는 이 ‘자연 찬양 시대’의 주인공인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동경해 마지않는 전원에는 자연에 대한 왜곡된 사고—특히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관념—가 단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지향한다는 조경 설계의 중심에는 그림 같은 자연—전원—을 연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자리한다. 우리는 전원예 대한 조경미학적 물음을 준비하고 진지한 응답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자연관의 중요한 한 단면이자 조경 설계의 전통적 이념인 ‘전원 이상’ (pastoral ideal)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해부해 보려는 문제 의식에 기반을 둔다. 전원이라는 이상의 유산 뒤에 숨겨진 그림자에서 우리는 자연을 낭만화시키고 신비화시켜 온 오랜 전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전원예와 조경 설계가 관계 맺고 있는 지점을 반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경이라는 인간 행위 속에서 자연이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전원 이상의 구현으로서 풍경식 정원

전원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양식을 조경사에서 찾는다면 단연 18세기의 영국 풍경식 정원(Landscape Garden)이다. 바꿔 말하자면 풍경식 정원은 전원적인 경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고자 했던 조경 설계의 대표적인 선례인 것이다. 또한 풍경식 정원은 보편적인 양식으로 전파되어 오늘날까지도 조경 설계의 교조 역할을 떠맡고 있는 형편이다.

조경이 기하학적 전통과 결별하는 경계를 마련했던 윌리엄 켄트(William Kent:1684~1748)는 풍경식 정원 양식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정원 설계의 불문율이었던 대칭의 원리를 파괴했다. 그가 수정한 「스토우 정원 Stowe Garden」에서는 기하학적 선—직선의 원로, 좌수화단, 팔각형 호수, 직선형 생울타리 등—이 자취를 감추고 불규칙한 곡선이 주인공이 되었다. 18세기 후반의 랜셀롯 ‘캐퍼빌리티’ 브라운(Lancelot ‘Capability’ Brown:1715~83)은 보다 거침없이 영국의 많은 땅들을 ‘자연스럽게’ 개조했다. 그가 개조한 「블렌하임궁 Blenheim Palace」의 정원에서 우리는 부드러운 기복이 있는 잔디밭, 거울처럼 잔잔한 수면, 우거진 숲과 덩불, 빛과 그늘의 대조를 만날 수 있다.²⁾ 그리고 그러한 경관에 전원적 또는 목가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의 화두는 불규칙한 자연이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풍경식 정원은 실은 신중한 계획에 따라 설계된 것이다. 설계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교묘하게 연출된 자연, 그러한 자연 창조 프로젝트의 모델은 무엇이었을까? 전원적인 풍경식 정원의 모델은 실재하는 자연의 외관이 아니라 ‘그림’이었다. 풍경식 정원은 18세기 초에 유행하던 그랜드 투어를

1) ‘그림 같은 자연’의 이미지에 자연 미를 대입시키는 현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줄고를 참조할 것. 배정환, “그림 같은 자연=아름다운 자연?” 『LOCUS1: 조경과 문화』 (서울:도서출판 조경문화, 1998), pp.9-20. 필자는 또한 자연에 대한 미적 경험을 형성해 온 관례를 자연의 그림화, 자연의 대상화, 자연 경험의 시각중심화라는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파악하고 그 이면의 문제를 비판한 바 있다. 다음을 참조할 것. 배정환, 『조경에 대한 환경미학적 접근:전통적 조경관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특히 II 장.

2) 참조. Tom Turner, *English Garden Design: History and Styles Since 1650*(Woodbridge: Antique Collector's Club, 1991).



[그림 2] Claude Lorrain, *Aeneas at Delos*, 1648 (자료; <http://www.bibl.u-szeged.hu/cgfa/lorrain/p-lorrain5.htm>)



[그림 3] Stourhead Garden의 전경 일부 (자료; T. O. Enge & C. F. Schröer, *Garden Architecture in Europe*, p.214)

통해 영국으로 수입된 17세기 이태리의 이상주의 풍경화가들의³⁾ 화면을 공간 속에 옮겨놓은 것에서 비롯하는 것이다.⁴⁾ 끌로드 로랭의 풍경화 「델로스에 도착한 아에네이스 *Aeneas at Delos*」와 풍경식 정원의 대표작 중 하나인 「스투어헤드 *Stourhead*」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신전, 호수, 다리 등과 같은 경물은 물론 그 색채까지 거의 일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그림 2와 3 참조). 이상주의 풍경화는 우리에게

게 매우 익숙한 자연의 모습—시아 양끝의 키 큰 나무, 중앙의 초원과 시내, 원경의 산과 하늘과 구름—을 담고 있는 그림 같은 자연의 원형이라 할 수 있고, 풍경식 정원은 그림 같은 자연으로 대표되는 회화적 자연관이 자연을 보는 방식을 넘어서 그것을 제작하는 방식이 되기까지 했음을 예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태리 풍경화가들이 실제로 본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경관’을 화폭에 담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회화는 규범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의 풍경화를 이상주의적 풍경화라고 통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규범으로 삼은 그 이상은 무엇인가?

이들이 그림을 통해 시각화하고자 했던 것은 ‘아카디아’ (Arcadia)라는 상상 속의 이상향이다. 아카디아는 그리스의 펠레폰네소스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평화로운 지역의 이름으로, 고대 시인들은 신화적인 황금 시대의 조화와 전원 생활의 평화를 아카디아로 상징해서 노래했다. 그 이후 유럽의 문학가들은 아카디아를 이상적인 삶의 상징으로 노래해 왔고 이러한 이상적인 행복은 서구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장르의 하나인 전원시로 이어진다.⁵⁾ 이 아카디아를 일반화한 개념이 곧 서구 문학과 회화의 중요한 전통이자 이상적 삶의 상징인 ‘전원 이상’ (pastoral ideal)이다. 따라서 우리는 풍경식 정원과 전원 이상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영어의 형용사 pastoral은 어원으로 볼 때 “양치기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영문학자 아브람스(M. H. Abrams)가 이 말의 문학적 용례를 “이상화된 자연 환경을 무대로 하는 양치기의 삶의 평화와 단순성 그리고 여타 농촌의 문화에 대한 도시 시인의 향수적 이미지”라고 풀이하듯이,⁶⁾ 전원은 어원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최고의 비평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노스롭 프라이(Northrop Frye)는 이 ‘전원’ 개념을 서구 문학의 중요한 상징의 하나로 파악한다. 그에

3) 17세기 이상주의 풍경화의 3대 거장으로는 니콜라 푸생(Nicholas Poussin:1594~1665), 끌로드 로랭(Claude Lorrain:1600~82), 살바토르 로사(Salvator Rosa: 1615~73)가 손꼽힌다.

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자면 landscape garden을 ‘풍경식 정원’으로 번역하는 관례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Landscape garden의 발생 연유와 그 본래적 의미를 충실히 따른다면 가장 정확한 번역어는 ‘풍경화 같은 정원’ 또는 ‘풍경화식 정원’일 것이다.

5)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서울:한길사, 1991), p.198, 주10.

6)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New York: Holt, Rinehardt & Winston, 1981), p.127.

게 있어서 상징은 곧 “원형”(archetype)이며 “전달이 가능한 단위”이다.⁷⁾ 그가 말하는 원형은 어떤 하나를 다른 것과 연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을 통일하고 통합하는 상징이다. 전원이라는 원형 체계는 서구 문학의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프라이의 설명이다. 많은 문학 작품에서 전원이라는 원형을 통해 특정한 자연의 모습이 술하게 반복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자연 미에 대한 관념과 경험의 어떤 일관된 원형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III. 전원 이상의 문학적 전통과 그 영향

전원 이상이라는 전통의 효시는 기원전 3세기 경 시칠리아에서 태어난 그리스 시인 테오크리투스(Theocritus)로 소급된다. 그의 『목가』(Idylls)는 양치기들이 노래 경연을 벌이는 고대의 전통을 빌려 와 도시 지식인의 시골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것으로,⁸⁾ 문학사의 중요한 갈래 중 하나인 전원적 애가(pastoral elegy)의 전통을 창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반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목가』가 묘사하고 있는 시골의 풍경은 평화의 아카디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상실의 경치, 죽음의 현존, 잃어버린 유년 등과 같은 주제가 『목가』 전편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목가』는 농부나 양치기를 위한 시가 아니라 열악한 “도시의 생활 여건에 불만을 느끼는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⁹⁾ 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목가』의 전원은 시골에 대한 도시인의 외부자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원 문학의 전통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고전은 기원전 42년에서 37년 사이에 쓰여진 버질(Virgil)의 『전원시 Eclogues』이다.¹⁰⁾ 특히 이 『전원시』는 이전 시대의 전원시들보다 자연의 경치를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무엇이 버질의 자연 묘사에 영감을 주

었을까? 고전 문학자 엘리노 윈저 리치(Eleanor Winsor Leach)와 조경학자 지나 크랜델(Gina Crandell) 등과 같은 몇몇 학자들은 버질이 당시의 회화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¹¹⁾ 당시 로마 귀족들의 저택에는 호머(Homer)의 『오디세이 Odyssey』에 묘사된 경관들을 벽화로 그려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으며, 그러한 그림에 묘사된 오디세이 경관들이 버질의 『전원시』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외에도 조경사에서는 버질풍 경관(Virgilian landscape)이라는 문구가 아직까지도 통용되는 만큼, 버질의 전원 개념은 조경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다고 볼 수 있다. 버질풍 경관은 ‘자연스러운’ 경관을 뜻하는 말로, 즉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대변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기원전 70년에 만투아(Mantua) 부근의 농장에서 태어난 버질은 테오크리투스의 작품들을 읽고 전원적 전통을 확장시켰다. 『전원시』에는 대화 또는 독백 형식의 전원시 열 편이 수록되어 있고 각 편은 약 100행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전원시』는 시골의 생활에 대한 장미빛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그러한 평가에 큰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원시』가 쓰여진 당시의 특별한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원전 42년은 브루투스와 케사르가 승전을 이끌어 낸 바로 그 해이다. 이 때 케사르 진영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귀향한 병사들에게 전공의 대가로 나눠주었다. 이태리 토지의 4분의 1 이상의 소유가 이 시기에 바뀌었다고 한다.

『전원시』의 제 1편은 바로 이 당시의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림 같은 자연의 전통과 그러한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으로 경험하게 되는 유산과 관련해서 이 제 1편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갖는다. 『전원시』 1편은 티티루스(Tityrus)와 멜리보에우스(Meliboeus)라는 두 양치기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멜리보에우스는 앞에서 언급했던 토지 몰수로

7)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140.

8) 참조. Theocritus, *Idylls*, reprinted in *The Greek Bucolic Poets*, trans. J. M. Edmonds (London: W. Heinemann, 1912).

9) Michel Conan, “Poetry into Landscape: Evolving Views of the Pastoral in Painting and Poetry from Antiquity to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Garden History* 17(3), 1997, p.165. 코난의 견해를 따르자면, “전원 경관에 대한 사랑은……도시 생활의 피할 수 없는 제약으로부터의 시적 탈출구”(p.166)이다.

10) 앞으로 인용할 『전원시』의 영어 역본은 다음과 같다. Virgil, *Eclogues*, reprinted in *The Eclogues: The Georgics: The Aeneid*, trans. C. Day Lewis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0), pp.1-26.

11) 참조. Eleanor Winsor Leach, *The Rhetoric of Space: Literary and Artistic Representations of Landscape in Republican and Augustan Rom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ch.1 ; Gina Crandell, *Nature Pictorialized: “The View” in Landscape Hist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ch.3.

인해 자신의 농장에서 추방당하게 된 인물이고 티티루스는 전원의 한가로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인물이다.

1편의 처음 몇 행은 티티루스와 멜리보에우스에 의해 상징되는 전원 이상의 두 가지 국면을 잘 보여 준다.

티티루스여, 당신이 너도밤나무의 넓은 그늘 아래 누워 여유를 즐기면서 목동의 파이프로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나는 내 정든 집과 경작지를 떠나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오. 나는 추방당한다네, 티티루스여. 당신은 팔다리를 뻗고 그늘에 누워 아마릴리스의 매력에 온 숲에 은은히 퍼짐을 느끼겠지.¹²⁾

로마 정부에 의해 추방당할 운명에 처한 멜리보에우스는 티티루스의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부러워하고 있다. 티티루스의 환경은 그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동시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들여진 자연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어지는 행에서 티티루스는 그림 같은 자연에서 펼쳐지는 자신의 행복한 여가와 평화로운 세계를 이렇게 묘사한다.

오, 멜리보에우스여, 내게 이 행복한 여가를 주신 이는 신이시오. 그렇소, 나는 영원히 그를 신으로 섬길 것이오. 그는 제단에 모셔질 것이고, 나는 가축 우리에서 어린 양의 피를 퍼서 제단을 얼룩지게 할 것이오.……그는 그러한 약속을 내게 주셨소. 나의 가축들이 연한 새싹을 마음껏 먹는 동안, 나는 통나무 플루트로 내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리.¹³⁾

티티루스의 평온한 전원은 잘 길들여진 가축이 풀을 뜯는 초원, 너도밤나무의 화려한 그늘, 그 아래 누워 노래를 하는 행복한 인간의 그림 같은 자연으로 묘사되고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러한 버질풍의 전원은 플로드 로랭의 풍경화에 묘사된 이상적 자연의 원형이다. 이러한 전원의 모습은 이후 이천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인간이 동경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원형으로 남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자연을 보고서는 미적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곤 한다.

그러나 시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티티루스의 전원이 이상적인 자연만은 아님이 곳곳에 암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티티루스의 농장은 바깥 세상의 혼돈과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평화와 안락을 보호받기 위해 시내와 울타리로 둘러싼 인위적인 전원이다.¹⁴⁾ “그 곳은 자족적이고 조화로운 소우주이며 균형 있는 삶의 상징이지만, 매우 거친 자연이라는 거대한 세계 한가운데에 고립된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¹⁵⁾ 이상적인 전원에서 추방당하게 된 운명에 당황해 하고 있는 멜리보에우스는 이 목장 너머의 모든 곳이 곧 혼돈의 세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림 같은 자연이 아닌 공포와 고통의 자연을 그리고 있다. 그에게 티티루스의 전원은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멜리보에우스가 그림 같은 자연에서 미적 경험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버질의 『전원시』는 아름다운 자연의 그림만을 연상하게 하는 텍스트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원 이면의 우울한 맥락은 잊혀지고 이상으로서의 전원만이 칭송받게 된다. 전원 이상의 이러한 유산에 대한 존 레니 쇼트(John Rennie Short)의 총평은 정곡을 찌른다: “맥락을 상실할 때 이념은 신화가 된다.”¹⁶⁾

버질의 신화적 전원은 처음에는 구전으로 노래되다가 후에는 『전원시』의 인쇄와 번역을 통해 서구 문화 곳곳에 전파된다. 그의 저작들을 모은 첫 번째 편서가 1469년에 이탈리아에서 출판되었고, 이후 유럽의 주요 언어들로 번역되었다. 버질의 전원 이상은 에드문드 스펜서(Edmund Spenser: 1552?~99)의 『양치기의 달력』, 필립 시드니(Sir Phillip Sidney: 1554~86)의 『아카디아』, 존 밀튼(John Milton: 1608~74)의 『리시다스 *Lycidas*』 등으로부터 계관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92)에 이르기까지 영어권 시인들에게 전원적 상징 체계의 원형으로 전승된다.

IV. 전원과 황야, 그리고 몇 가지 유산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전원 이상은 이탈리아의 이상적 풍경화가들에 의해 시각화된다. 이들에 의해 시각화

12) *Eclougue I*, lines 1-5.

13) *Eclougue I*, lines 6-10.

14) 참조. *Eclougue I*, lines 51-58.

15) Gina Crandell, *Nature Pictorialized*, p.43.

16) John Rennie Short, *Imagined Country: Environment, Culture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1991), p.30.

된 아카디아는 그림 같은 자연이라는 유산을 남기며 유럽인의 자연 경험의 구조 내에 깊이 각인된다. 풍경화 속의 이상적 자연은 18세기 영국에서 풍경식 정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에 실물의 형태를 갖춘 현실로 구현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은 18세기의 미학과도 공통 분모를 갖는다.¹⁷⁾ 우선 우리는 18세기에 이르러 미학의 관심사가 사물의 객관적 성질로부터 주관의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옮겨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주관의 심적 상태와 능력을 분석하는 일에 중심을 둔 당시의 미학은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의 미적 경험을 설명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전원 개념과 새로운 풍경식 정원이 미적 경험의 중요한 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18세기의 미학자들이 풍경식 정원의 이론적 틀을 구축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당시의 미학 담론에서 픽취레스크(the picturesque) 개념이 갖는 비중에서 주목할 수 있다. 미의 주관화 경향에 따라 아름다움(the beautiful) 및 숭고(the sublime)와 구별되는 제 3의 미적 범주로 대두된 픽취레스크는 "거칠고 불규칙한" 특질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지만, 실은 전원과 풍경식 정원의 의도적으로 연출된 자연을 대변하는 개념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픽취레스크가 풍경식 정원의 이론적 방패로 역할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전원 이상은 또한 18, 19세기에 발달한 '시골'(countryside) 개념의 정신적 모델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에 따르면, country는 반대(against, opposite)라는 뜻을 지니는 contra로부터 유래한 말이다. 라틴어의 contrata terra는 "반대편에 있는 또는 마주 보이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country는 본래 "보는 사람의 반대편에 넓게 펼쳐진 토지"라는 의미를 지니며,…… countryside는 18~19세기에 발달한 country의 현대적 의미이다.¹⁸⁾ 그는 19세기 당시에는 countryside가 오늘날과

는 달리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과 경제"까지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한다.¹⁹⁾ 앞에서 인용했던 문학 이론가 아브람스의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원 이상은 "시골에 대한 도시인의 향수적 이미지"이다. 시골은 복잡한 도시와는 달리 무언가 평화롭고 단순한 곳이라는 생각을 도시가 발달하던 시대의 엘리트 계급에서 하게 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전원 이상과 시골 개념이 교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식 정원을 탄생시킨 것은 현실 정치에 실망하고 귀향한 재야의 1세대였다."²⁰⁾ 미술사가 마르틴 바른케(Martin Warnke)의 이러한 지적은 당시 영국 농촌의 지주들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시골의 위상과 그들의 눈에 새롭게 비친 자연의 모습을 반영한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자연 인식의 변화를 방대하게 분석한 케이스 토마스(Keith Thomas)는, 시골의 부각은 도시라는 신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또 하나의 신화를 낳았다고 말한다.²¹⁾ 시골이라는 말의 용례가 영어에 처음 등장한 것은 런던이 급성장하기 시작하던 16세기였다. 이후 시골은 왕실의 관습, 시장의 야만성, 도시의 익명성 등과 같은 도시 문화의 해악과 대조되어 칭송되었다. 시골은 불완전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되는 완벽한 과거, 즉 신화적인 황금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취로 여겨졌다. 이러한 신화는 도시화와 근대화가 계속되면서 그 효력을 한층 더 발휘한다(그림 4 참조).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와 전원 이상이라는 동경이 시골이라는 땅에 발을 내린 것이다.

도시와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시골은 곧 도시가 잃어버린 자연과 동격시된다. 영국 농촌의 이상적인 전원 경관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개념이 대입되는 것이다. 바른케의 다음과 같은 해석은 이에 대한 훌륭한 반증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자연을 볼 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심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자연은 문명화한 인간이 남겨 둔 마

17)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줄고 『조경에 대한 환경미학적 접근』의 Ⅱ장 2절과 3절을 참조할 것.

18) Raymond Williams, *The Country and the City*(London: Chatto and Windus, 1973), p.369.

19)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 e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81.

20) Martin Warnke, *Politische Landschaft: Zur Kunstgeschichte Der Natur*, 노성두 역, 『정치적 풍경』(서울: 일빛, 1997), p.87.

21) 참조. Keith Thomas, *Man and the Natural World: Changing Attitudes in England 1500-1800*(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243-54, 300-03.



[그림 4] 세종로의 가로: 도심 한가운데에 도입된 시골의 경관
(자료: 서울대 조경학과 조정승 교수 촬영, 1995. 4.)

지막 도피처다.……인간「의」 생활이 주어진 자연……을 벗어나 영위된 때부터 풍경은 이상향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²²⁾

유럽인들에게 이처럼 깊이 각인된 이상화된 전원—즉 아름다운 자연—이 북미 대륙의 초기 정착민들에게 전해졌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아메리카의 모습은 공포의 황야(wilderness)였다. 메이플라우어 호에서 내린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는 “섬뜩하고 황량한 황야”를 발견하고는 문명의 적인 황야를 정복하고 섬멸하는 일을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다짐했다.²³⁾ 뉴잉글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한 청교도들은 황야를 정복하여 전원 이상에 충실한 제 2의 에덴으로 바꾸는 일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청교도들이 황야를 공포의 환경으로 두려워한 것은 황야가 담고 있는 무절제한 자유의 은유 때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그러한 자유가 문명의 장막을 벗겨서 인간을 숲 속에 거주하는 야수처럼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폴 셰퍼드(Paul Shepard)는 당시의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64)의 소설 『주홍글씨 The Scarlet Letter』(1850)에서 드러나는 성(sexuality)에 대한 청교도들의 경멸과 연관지어 해석한다.²⁴⁾ 황야에 대한 두려움과 성에 대한 경멸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제 2의 에덴이라는 지상 낙원을 꿈꾸며 대서양을 건너왔지만 숲터의 경계 바로 밖에서 황야를 마주해야 했다. 성과 마찬가지로 황야는 통제하기 어렵고 광적이며 규칙과 조절을 쉽게 따르지 않았다. 황야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어둡고 사악한 악마의 상징이기도 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²⁵⁾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황야를 『시편』 23장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림 같은 자연으로 변모시키고자 했다. 특히 독립 선언을 기초한 미국의 제 3대 대통령이자 건축가(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조경가)이기도 했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은 순수하고 행복한 전원적 마을만이 가득한 국가를 꿈꾸었다.²⁶⁾ 전원 이상의 이러한 미국적 변형을 흔히 “제퍼슨적 이상”이라고 부른다.

물론 19세기 초반을 넘어서면서 미국인들은 황야가 유럽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대적할 수 있는 자신들의 유일한 자산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신세계의 자연이 구대륙의 문화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는 자부심은 황야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의 대표격으로 우리는 제퍼슨의 다음 세대를 산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62)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월든 Walden』에서 볼 수 있는 숲 속의 생활은²⁷⁾ 인간의 손길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야생과 원시의 삶이 아니다. 소로우의 숲은 혼란한 도시와 공포의 황야 사이에 위치한 안전한 전원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평가도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레오 마르크스(Leo Marx)는 소로우의 자연을 이렇게 평가한다: “종종 그를……사회로부터 도피하는 완전한 은일의 주장자로 오해

22) Martin Warnke, *Politische Landschaft: Zur Kunstgeschichte Der Natur*, p.216.

23) William Bradford, *Of Plymouth Plantation, 1620-1647*, ed. Samuel Eliot Morison(New York, 1952), p.62; Roderick Nash,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 3rd ed.(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p.23-24에서 재인용.

24) 참조. Paul Shepard, *Man in the Landscape: A Historic View of the Esthetics of Nature* (New York: Alfred A. Knopf, 1967), pp.141, 146, 181.

25) 구약 성경 『시편』 23장 1~3절.

26) 참조. Frederick Doveton Nichols, *Thomas Jefferson, Landscape Architect*(Richmond: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82).

27) 참조. Henry David Thoreau, *Walden*, 강승영 역, 『월든』 (서울: 도서출판 이레, 1995).

하는 경우가 많지만……「그는」 진정한 원시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월든』이 펼쳐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 그의 미와 가치의 주된 궤적은……전원 취미의 특징인 중간 경관(middle landscape)에 있다.”²⁸⁾ 마르크스가 말하는 중간 경관은 “문명과 자연의……’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준 원시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한다.²⁹⁾ 이러한 지점에서 역설적이게도 전원 이상과 향야 개념이 공통 분모를 갖는다. 소로우가 우리에게 전한 향야는 전원 이상의 또 다른 변형이라 말해도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의 「몬티첼로 Monticello」(그림 5 참조)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99)의 「마운트 버논 Mount Vernon」은 미국에 이식된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적 유산이다. 제퍼슨은 풍경식 정원을 미국의 주택과 마을 경관의 모델로 삼았고, 1786년에는 현지 답사를 위해 영국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이 여행에 동반했던 이븐 존 아담스(Even John Adams)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머지 않아 승마, 공원, 유희 공간, 정원, 장식 농원,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진 형태가 미국에서 유행할 것이다.”³⁰⁾ 당시의 미국인들이 꿈꾼 전원 이상은 너도밤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풀을 뜯는 양떼를 보며 플루트를 연주하는 티티루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제퍼슨적 이상은 19세기를 거치면서 앤드류 잭슨 다우닝(Andrew Jackson Downing: 1815~52)이라는 걸출한 건축·조경가의 능력에 힘입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³¹⁾ 다우닝은 영국 풍경식 정원을 미국적 형태로 번안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화했다. 또한 그는 1850년 영국을 방문하는 중에 젊은 건축가 칼베르 보(Calvert Vaux)를 만나 미국으로 함께 귀국한다. 보는 다우닝의 건축 파트너로 협



[그림 5] Monticello의 전경 (자료: <http://www.cr.nps.gov/worldheritage/jeff.htm>)

력하다가 1857년에는 프레드릭 로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 1822~1903)와 함께 센트럴 파크 현상 공모에 당선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센트럴 파크는 유럽의 전원적 이상이 미국의 공공 공원에 이식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퍼슨의 이념과 다우닝의 실천이 구현해 낸 미국식 정원은 하와이나 통가와 같은 곳은 물론 동아시아에도 전파되어 그림 같은 자연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산과 같은 신도시에서 제퍼슨 시대의 전원 목조 주택이 인기 있는 고급 주거 양식으로 부활되고 있는 기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우리는 혼란하고 메마른 도시를 떠나 ‘그림 같은 자연’ 속에서 박제화된 전원 생활을 즐기는 꿈을 꾸고 있다.

28) Leo Marx, “The American Ideology of Space,” in *Denatured Vision: Landscape and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eds. Stuart Wrede and William Howard Adams(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91), p.71.

29) Leo Marx, *The Machine in the Garde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l in America*(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23.

30) May Brawley Hill, *Grandmother’s Garden: The Old-Fashioned American Garden 1865-1915*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95), p.14에서 재인용.

31) 참조. Keith Thomas, *Man and the Natural World: Changing Attitudes in England 1500-1800*(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243-54, 300-03.

31) 참조. Andrew Jackson Downing, *A Treatise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andscape Gardening, Adapted to North America: with a View to the Improvement of Country Residences*(1841), reprinted in *Landscape Gardening and Rural Architecture*, with a New Introduction by George B. Tatum(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1). 최근 다우닝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Adam W. Sweeting, *Reading Houses and Building Books: Andrew Jackson Downing and the Architecture of Popular Antebellum Literature 1835-1855*(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96) ; David Schuyler, *Apostles of Taste: Andrew Jackson Downing 1815-1852*(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Judith K. Major, *To Live in the New World: A. J. Downing and American Landscape Gardening*(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7).

V. 맺음말

문학을 통해 깊이 각인되어 온 전원 이상은 회화의 주제로 오랫동안 차용되다가 정원이라는 실물로 구현된다. 상상의 아카디아가 현실의 자연으로 변모한 것이다. 회화적 자연관의 시각에서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은 단순하고 평화롭고 질서있는 전원의 겉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그러한 전원을 자연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자연에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곤 한다. 도시인이 자연의 미적 경험을 위해 떠나는 곳은 풍경식 정원의 구성을 연상시키는 그림 같은 전원인 경우가 많다. 물론 원시림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이미 미적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는 탐험이고, 설령 그것이 미적 경험이라 하더라도 사진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익숙해진 원시림의 경험이므로 그것 역시 그림화(pictorialization)된 야생의 미적 경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같은 자연과 전원 이상의 결합은 이러한 양태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전원 이상이 꿈꾸는 그림 같은 자연은 우리가 문명의 반대 극단이라고 신화화해 온 원생의 자연이 아니다. 인간-자연 이원론의 구조 속에서 신화적인 자연을 저 멀리 상정해 놓고 막상 우리는 인간 문화의 소산인 그림 같은 자연을 자연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 속에서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신비화하는 한편 전원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모순의 역사를 걸어 온 셈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 있듯이, 전원 이상과 그림 같은 자연은 도시인의 관점만을 반영한다.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내부자의 삶과 고통스러운 현실은 감추어진다. 이미 18세기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1688~1745)가 명쾌하게 지적한 바 있듯이, "전원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영(illusion)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양치기의 삶의 가장 좋은 측면만을 드러내고 그 비참한 고통을 감추는 데 있다."³²⁾ 그림 같은 전원은 그 내부의 구조나 과정과는 무관한 정태적 물체로서의 경관이다. 그것을 미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무관심적 관조(disinterested contemplation)의 실천에 몰입하는 외부의 구경꾼일 뿐이다. 그러한 황금새장 속의 자연을 그 내부의 거주자들은 아름답다고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티티루스만을 추종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버질의 『전원시』는 전원 이상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국면을 벨리보에우스의 입을 통해 분명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의 조경가들은 전원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숨쉴 때마다 그림 같은 자연을 '자연적'이라고 말하고 실천하는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장식술적 조경을 탈피해 자연의 건강함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견지하는 입장이 '생태적 조경'이라는 이름 하에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생태적 설계임을 표방하는 프로젝트들의 다수가 생태학적 원리보다는 녹색의 그림 같은 자연이라는 구호에 여전히 기대고 있는 모순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기하학적 도형이나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길을 내고 나무를 숲처럼 무성히 심고 물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아스팔트 대신 흙과 모래로 포장을 하고 새와 곤충을 거주하게 한다고 해서 생태적 조경의 이념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설계의 결과물과 전원 이상의 강령을 따르는 풍경식 정원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우리가 전원 이상의 이면을 거울 삼아 이 시대의 조경 설계를 반성해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 용 문 헌

- Abrams, M. H.(1981)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4th ed., New York: Holt, Rinehardt and Winston.
 Conan, Michel(1997) "Poetry into Landscape: Evolving Views of the Pastoral in Painting and Poetry from Antiquity to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Garden*

- History* 17(3):165-70.
 Crandell, Gina(1993) *Nature Pictorialized: "The View" in Landscape Hist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Downing, Andrew Jackson(1841) *A Treatise on the Theory*

32) Alexander Pope, *A Discourse on Pastoral Poetry*(1704), reprinted in *The Poems of Alexander Pope*, ed. John Butt(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p.120.

- and Practice of Landscape Gardening, Adapted to North America: with a View to the Improvement of Country Residences*, reprinted in *Landscape Gardening and Rural Architecture*, with a New Introduction by George B. Tatum(1991),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Enge, Torsten Olaf, and Carl Friedrich Schröer(1992) *Garden Architecture in Europe 1450-1800*, Köln:Benedikt Taschen.
-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역(1991) 『비평의 해부』, 서울: 한길사.
- Hill, May Brawley(1995) *Grandmother's Garden: The Old-Fashioned American Garden 1865-1915*, New York: Harry N. Abrams, Inc.
- Leach, Eleanor Winsor(1988) *The Rhetoric of Space: Literary and Artistic Representations of Landscape in Republican and Augustan Rom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jor, Judith K.(1997) *To Live in the New World: A. J. Downing and American Landscape Gardening*,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arx, Leo(1964) *The Machine in the Garde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l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x, Leo(1991) "The American Ideology of Space," in *Denatured Visions: Landscape and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eds. Stuart Wrede and William Howard Adams,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pp.62-79.
- Nash, Roderick(1982)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 3r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Nichols, Frederick Doveton(1982) *Thomas Jefferson, Landscape Architect*, Richmond: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 Pope, Alexander(1704) *A Discourse on Pastoral Poetry*, reprinted in *The Poems of Alexander Pope*, ed. John Butt(197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119-23.
- Schauman, Sally(1998) "The Garden and the Red Barn: The Pervasive Pastoral and Its Environmental Consequences,"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2):181-90.
- Schuyler, David(1996) *Apostles of Taste: Andrew Jackson Downing 1815-1852*,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hepard, Paul(1967) *Man in the Landscape: A Historic View of the Esthetics of Nature*, New York: Alfred A. Knopf.
- Short, John Rennie(1991) *Imagined Country: Environment, Culture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 Sweeting, Adam W.(1996) *Reading Houses and Building Books: Andrew Jackson Downing and the Architecture of Popular Antebellum Literature, 1835-1855*,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Theocritus, *Idylls*, reprinted in *The Greek Bucolic Poets*, trans. J. M. Edmonds(1912), London: W. Heinemann.
- Thomas, Keith(1996) *Man and the Natural World: Changing Attitudes in England 1500-18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horeau, Henry David, *Walden*, 강승영 역(1995) 『월든』, 서울: 이레.
- Turner, Tom(1991) *English Garden Design: History and Styles Since 1650*, Woodbridge: Antique Collector's Club.
- Virgil, *Eclogues*, reprinted in *The Eclogues: The Georgics: The Aeneid*, trans. C. Day Lewis(1990),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Warnke, Martin, *Politische Landschaft: Zur Kunstgeschichte Der Natur*, 노성두 역 (1997) 『정치적 풍경』, 서울: 일빛.
- Williams, Raymond(1973)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Chatto and Windus.
- Williams, Raymond(1985) *Key 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배정환(1998) "그림 같은 자연=아름다운 자연?" 『LOCUS 1:조경과 문화』, 서울: 도서출판 조경문화, pp.9-20.
- 배정환(1998) 『조경에 대한 환경미학적 접근:전통적 조경관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